

오전9시/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	도
※ 예배기원	인	도
※ 경배찬송 21장(다 찬양 하여라).....	다	같이
※ 교독문53(시편121편).....	다	같이
※ 신앙고백(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287장(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차소라집사 2부 박홍만장로	찬양대	
응답송	찬양대	
금주의찬양 “ 형제의 모습속에 보이는 ”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같이
*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슬픔과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사무엘하1:11-16	심문자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211장(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	같이
봉헌 (1 구역)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노순영집사 본문 / 요한복음43:23-24 말씀 / 최세열목사 “제8과 구원의 축재 - 예배” 축도 / 최세열목사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출20:14 말씀 / 최세열목사 “간음하지 말라”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히브리서강해		
				금요기도회		
				구역대심방 기간중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다음주 기도	1부 박기환집사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10월	박상귀 김장숙 이유자 이종열		다음주	1부 말은이
		11월	엄정현 이영란 박현순 손주완		성경봉독	2부 박상귀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B	다음주	사라희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헌신찬양	금주	1 구역		다음주	2 구역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 사무엘하1:11-16(고후2:15)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윽한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윽한 향기는 좋기만 할 뿐 아니라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아로마테라피). 그런데 꽃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고후2:15)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향기입니다. 다윗을 통해 맡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1. 관용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좋은 관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전쟁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큰 딸을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겼고, 둘째 딸을 주겠다고 다윗을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을 사위로 삼은 후에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결국 다윗은 10년의 도피와 유랑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사울왕의 전사소식을 듣습니다. 기뻐해야할 다윗이지만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오던 사울을 끝까지 관용으로 보듬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참고 또 참을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미워해서 안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관용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관용을 베풀 때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관용은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입니다.

2. 우정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따라 자연스럽게 왕이 될 요나단과 새로운 왕의 후보로 떠오르는 다윗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해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순수한 우정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빠질 때 마다 구해줍니다. 요나단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삼상20:17). 다윗은 역시 요나단을 진심으로 친구로 대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소식을 듣자 그는 조가를 지어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사랑함은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삼하1:26). 이 우정은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자의 하나로 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상황(정적관계)을 뛰어 넘고, 이해타산(왕위)을 뛰어 넘고, 시간을 뛰어 넘은 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깊고 고귀한 우정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존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상을 얻기 위하여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다윗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긴 직분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존중은 그의 외모나 조건이나 도덕적 윤리적 의나 결함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이 있어도, 내 맘에 들지 않아도, 나와 입장이 달라도 혹은 나를 비난하더라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과 우정과 존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창조절 여섯번째 주일(10월 9일)

제41과 헌금의 복된 원리(누가복음 고린도후서9장 6-15절)
(함께 읽을 말씀 : 신명기 26장 1-11절, 누가복음 12장 13-21)

1. 진정한 헌금 -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가 물질을 탐내어서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 참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내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만을 받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출 25:2). 주변의 눈치를 보아 억지로 바치거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여 마지못해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바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쁘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눈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하는 마음을 교육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백성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한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2. 헌신하는 신앙 -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에 놀려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살이하던 시절에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도 풀려나게 하시고 영생복락을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구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탐욕을 벗어나 마음이 담긴 물질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에는 감사하는 정성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바치는 신앙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에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생활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기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벨은 자신을 버리고 이웃과 타자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창 4:2). 예물을 바칠 때 아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중심으로 흠의 소산을 바쳤습니다. ‘흠의 소산’이라 함은 욕의 욕심으로 거둔 열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은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기복신앙을 대표합니다. 아벨은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3.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금 - 헌금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성장할 때 참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성경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할 것은 헌금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교회가 받은 헌금을 관리할 때 세상의 기업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면 성경께서 슬퍼하십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민18:20-21). 목회자는 헌금 관리와 사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공공기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안수집사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오후1시)
- 다음 주일 찬양예배는 베다니집을 위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여신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부터 구역심방을 시작합니다.
심방일정 : 8일(목)-4구역, 10일(토)-3구역, 13일(화)-2구역, 15일(목)-1구역, 7구역, 16일(금)-5구역, 22일(목)-10구역, 23일(금)-8구역, 29일(목)-6구역, 30일(금)-9구역
-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8시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구역대심방기간 중에는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교우소식 : 최임춘권사님의 아들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교인 가을 야유회 안내
* 일시 : 11월 7일(토) 오전9:00출발 * 장소 : 허브아일랜드의 1곳
* 회비 : 1인 15,000원 * 진행 : 친교부와 바울회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0월 둘째주일까지 친교부장(김혜경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순례단 모임이 찬양예배 후 전도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선주 원혜경 이광주 흥해미 한상호 차소라 정숙자 강항구 류종란 김혜경 이종봉 이춘호 최지현 서영자 박치국 이영란 김근중 주종임
- 감사헌금 : 한상진 김선주 원혜경 김애자 손승진 김지환 양희임 방옥남 이강영 최영랑 안해숙 김동현 이유자 손승순 강인수 강주한 강주희 서영자 명다빈 명한빈 손효정 황영희 이유선 박치국 이영란 박광섭 한봉홍 양상례 윤경화 (일천번제)김동현
- 건축헌금 : 박치국 이영란 김혜경 강항구 류종란 이루다 한상호 차소라 김선주 원혜경 베드로회
- 비전씨앗 :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임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임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이현옥						7	강은순	이영선					
2	정정희	신혜영						8	김순님	오복실	김상예	6	25,000	40	김장숙
3	이춘호	황경숙	교 회	5	15,000	1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김미연	3	16,000	200	박기환
4	김기희		김정민	6	14,000	50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5	이문순	원혜경	원혜경	3	13,000	30	한은미	계					27	107,000	482
6	류종란	김애자	양희임	4	24,000	62	강진숙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중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송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 찬송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잠 17:9)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과 덕

미국 남북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맥클란 장군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맥클란을 격려하기 위해 예고 없이 야전사령부를 찾았다.

그 때 맥클란은 전장에 있었다. 링컨은 몇 시간을 기다려 그를 만났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맥클란은 링컨대통령에게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버렸다. 한참 후 맥클란의 부관이 내려와 대통령에게 말했다.

“장군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각하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방장관은 화를 참지 못했다. “이런 무례한 장군은 당장 직위해제 시켜야 합니다.”그러나 링컨은 고개를 저으며 장관을 타일렀다.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아무도 그가 실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저런 소신 있는 장군이 진정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링컨은 조용히 되돌아갔다. 지도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덕’과 ‘아량’이다. 관용이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5-40 2015.10.4.

칭조절 다섯째주일 / 군선교주일

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시월의 첫 주를 맞으며
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피와 주님의 살로 정결케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월의 하늘은
드높고 푸르며 아름답지만
저희의 삶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살이에 짓눌려 굽어진 허리를 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일상 속에 가득한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특별히 군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허리가 동강난 채 여전히 피 흘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분단의 현장에서 총부리를 겨누는 이들을 향한
군선교에 힘쓰게 하시어
평화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 최지현